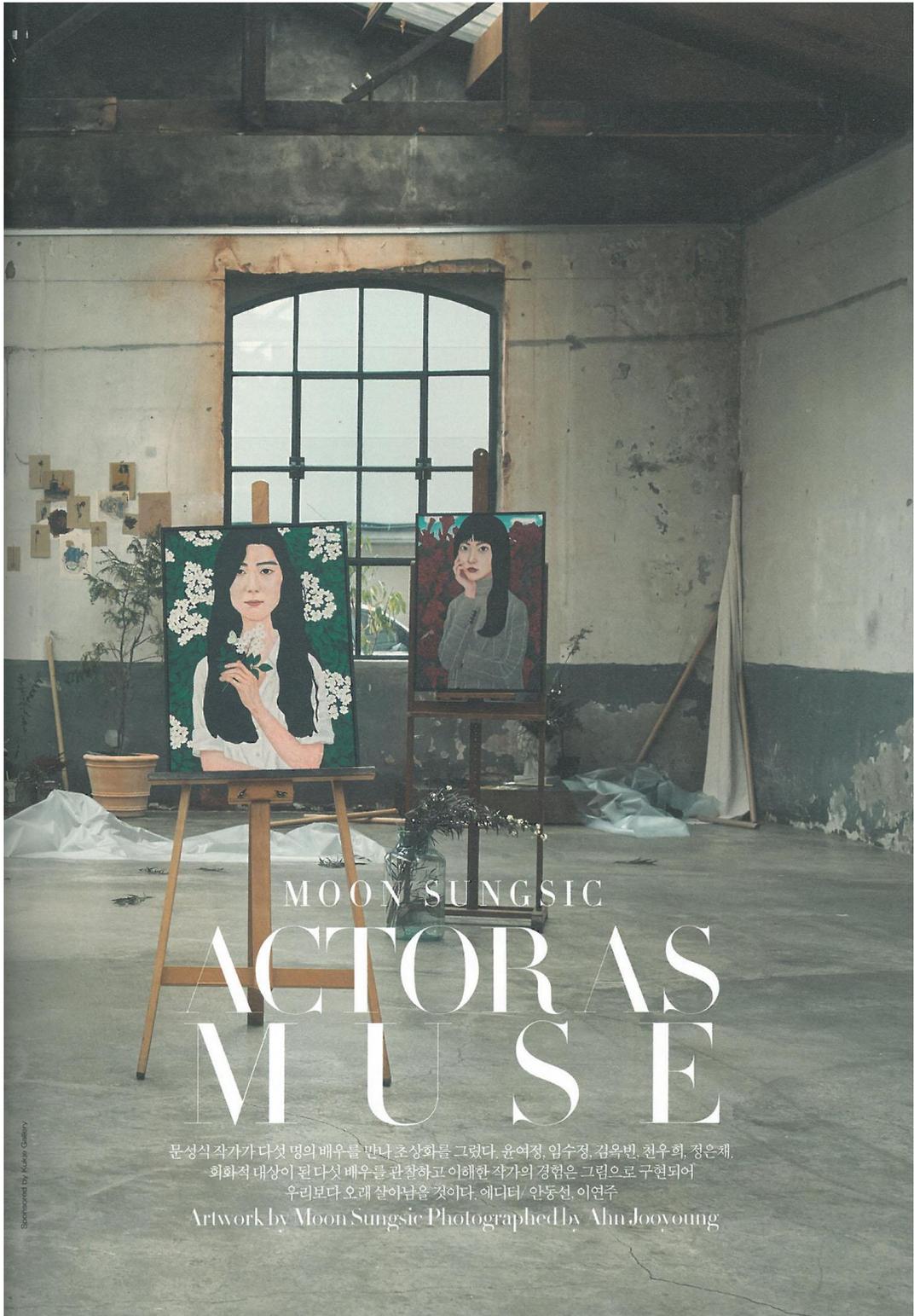


## MOON SUNGSIC: Actor As Muse

October, 2017 | 안동선, 이연주 에디터

page 1 of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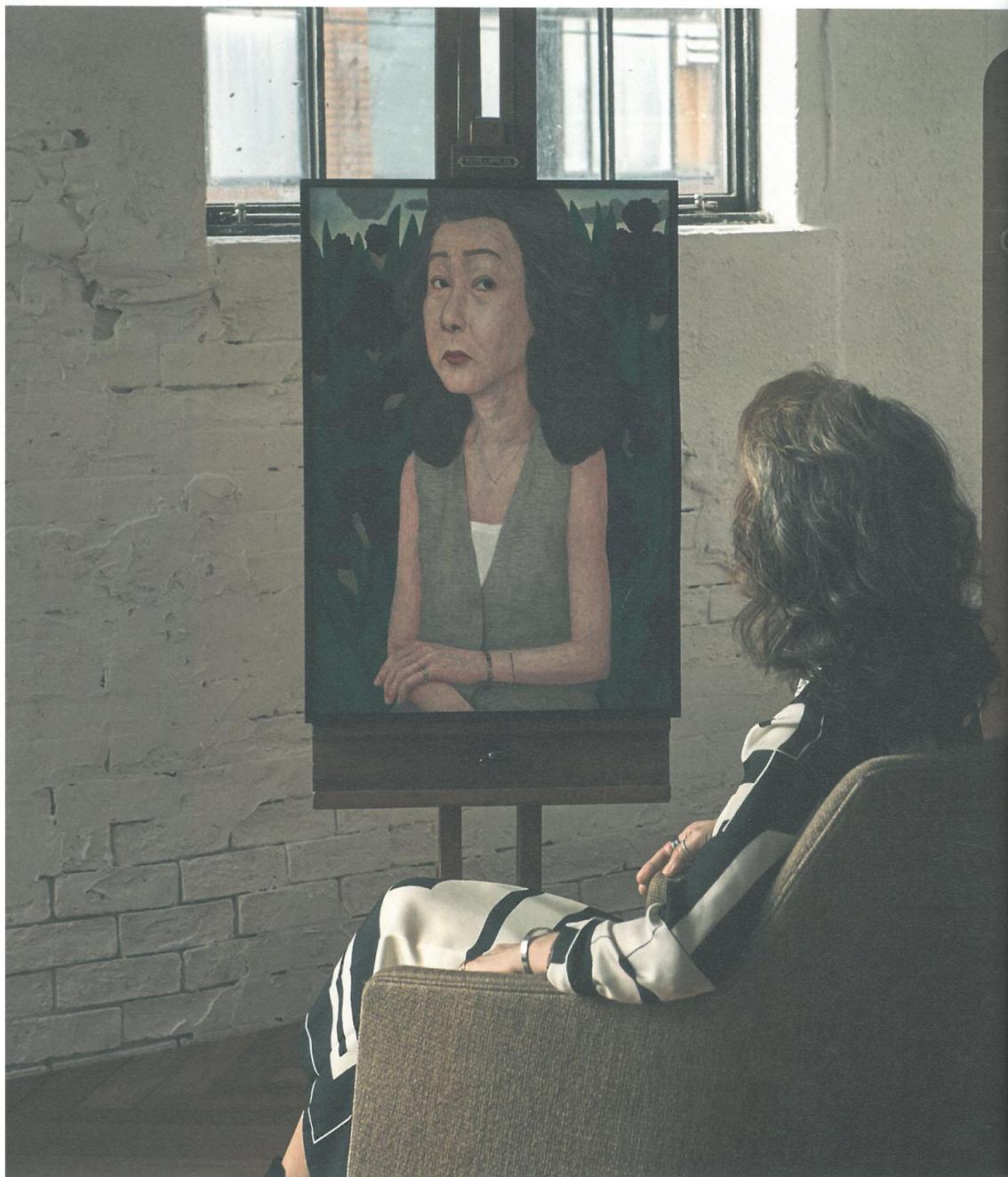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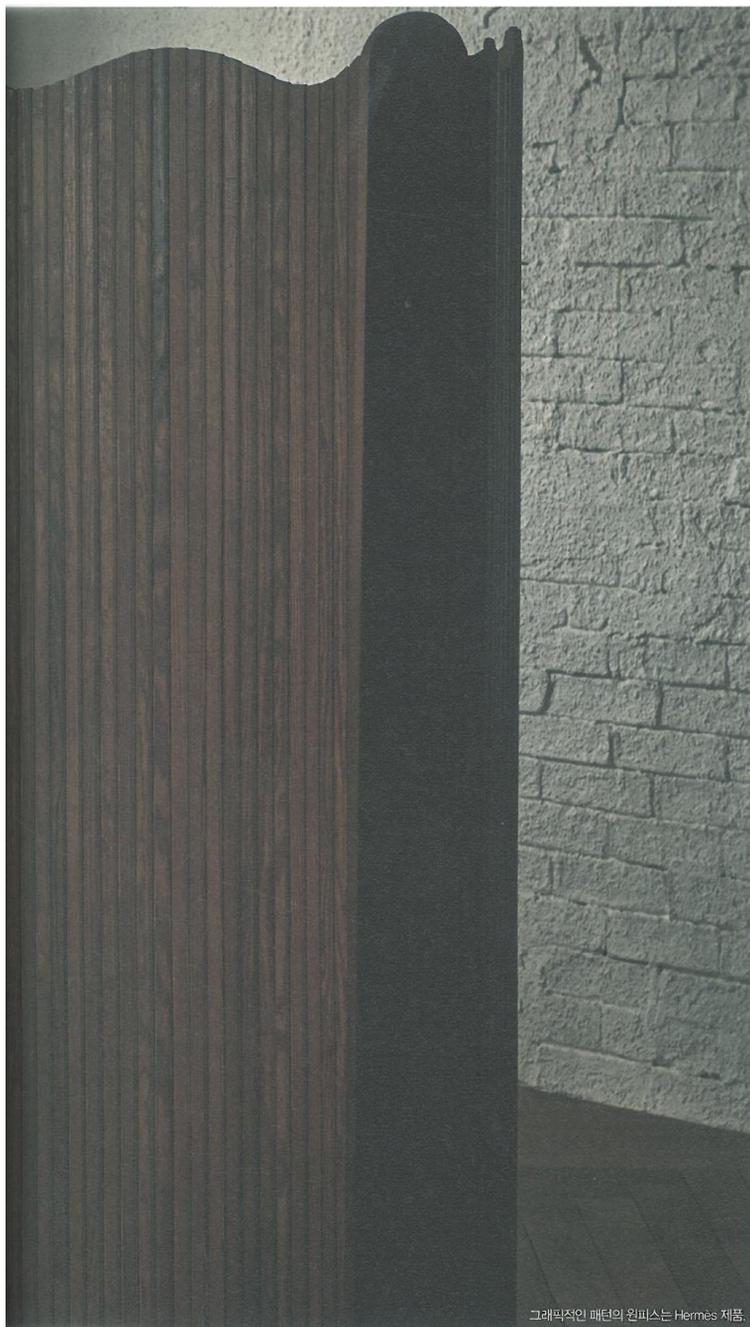


MOON SUNGSIC  
ACTORAS  
MUSE

문성식 작가가 다섯 명의 배우를 만나 초상화를 그렸다. 윤여정, 임수정, 김옥빈, 권우희,정은채.  
회화적 대상이 된 다섯 배우를 관찰하고 이해한 작가의 경험은 그림으로 구현되어  
우리보다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에디터/ 안동선, 이연주

Artwork by Moon Sungsic Photographed by Ahn Jooyoung





그래픽적인 패턴의 원피스는 Hermès 제품.



## YOUN YUH JUNG

“나랑 별로 안 닮은 것 같네. 문성식 작가가  
원래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리는 화가라고. 좋네요.”

윤여정은 아이코스를 우아하게 손가락 사이에 끼운 채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랑 별로 안 닮은 것 같네. 문성식 작가가 원래 똑같이 그리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리는 화가라고. 좋네요.” 건축가와 아티스트 등 예술 분야의 사람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윤여정은 문성식과도 이는 사이인 작가들에게서 그가 어떤 아티스트인지 들은 모양이었다. 문성식 작가는 인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초상화를 그리지 않는다. 그는 ‘형태 변형’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그 인물에게서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바를 구현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윤여정이라는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현대적인 예리함을 지닌 배우의 특별한 개성을 문성식 작가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문성식이 윤여정을 관찰하며 대화를 나눈 드로잉 미팅과 작가가 여름내 부임동 작업실에서 홀로 캔버스를 마주하고 수만 번의 붓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관점의 굴절이 이 작품을 특별하게 해준다. 그림 속의 윤여정은 윤여정이 되 윤여정이 아니기도 했다.

여름 한가운데, 윤여정과 문성식은 얇은 붓 두어 자루와 농담을 조절하는 물통, 흰 종이 놓인 너른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드로잉을 연필로 안 하네요? 붓이 더 어렵지 않아요?” “네, 그렇긴 해요. 수정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왜 붓을 써요?” “제가 선생님들 만나서 받는 느낌을 그대로 담아보려고요. 본격적인 페인팅은 오늘 그린 드로잉을 활용해서 다시 그릴 거라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현장감을 담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있죠, 주름을 푹푹 그리세요.” “네, 많이 그렸습니다. (웃음)” “팔자를 아주... 화려하게 그렸네.” (짜증 웃음)

문성식에게 윤여정은 가장 그리기 즐거운 모델이었다. “첫인상은 회색빛이라는 거였어요. 머리색깔, 옷, 피부...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흰빛이 감도는 회색이 된다고 느껴요. 그게 인상적이어서 전체적인 톤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 특유의 시니컬한 표정, 개의치 않는 성격을 잘 잡아내고 싶고 특히 손 같은 피부의 질감이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하얗고 볼부가 많고 핑크도 섞여 있는데, 원래 노인의 손이 회화적이고 오묘하고 아름다워요.” “그렇다면 윤여정에게는? ‘내가 램브란트 시절의 사람도 아니지만 독특한 경험이긴 했지. 내 나이에 신기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저 나는 피사체가 되는 거고 저이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그가 임무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 했어요.” “이토록 명쾌하게 초상화 작업을 정의하는 윤여정에게도 초상화를 향한 로맨틱한 애정을 간직하게 한 작품이 있다. 그의 아이폰 바탕화면을 모델리아니가 잔 에뷔테른을 그린 그림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젊을 적부터 이 그림이 좋았어요. 그때는 모델리아니와 이 여자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좋아했는데, 나중에 러브스토리를 듣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사랑은 뭘까, 생각했죠. 모델리아니가 자신의 연인을 그림으로써 자기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든 것 같아요.” “나 역시 문성식과 윤여정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보랏빛 아이리스가 흐드러진 배경 속, 뭇 모를 표정으로 홀연히 나타난 윤여정이 이루는 오묘한 세계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크다.

페이즐리 패턴의 시몬 원피스는 Hermès 제품.





왼쪽 페이지: 플라워 패턴 셔츠, 스커트, 슈즈는 모두 Fendi 제품. 오른쪽 페이지: 기하학적인 패턴의 드레스는 Fendi 제품.



## LIM SOO JUNG

“이 여자의 신념, 생각, 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임수정은 문성식 작가의 초상화를 가장 기뻐하며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신념 어린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 속 자신과 마주 선 임수정이 말했다. “이 여자의 생각,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내 길 길은 저기야 하는 눈빛에서 ‘뜻뜻이 내 길을 가리라’ 이런 게 느껴져요.” 문성식과 임수정은 드로잉 미팅에서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팀 중 하나다. 두 사람의 대화는 구상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또 그 반대로 설 새 없이 이어졌다.

“저도 작은 작업실이 하나 있는데 기타를 치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해요. 원래는 글을 쓰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창작에 관심이 있으시네요.” “호기심과 관심이 많죠. 언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 걸 보여주기보다 다른 작가가 창작한 세계를 구경하는 일이 훨씬 즐거워요.” “아주 훌륭한 관객이시군요. 그건 저 역시도 그래요. 여전히 아주 많은 작가들을 좋아하고 그들의 작업을 볼 때가장 행복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섯 명의 배우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에 대해 갖고 있던 이미지와 그들을 직접 볼 때 느끼는 바뀐 느낌, 그런 것들이 그대로 그림에 반영되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수정 씨가 좋다고 한 제 그림(2002년 작인 ‘집’)처럼 저는 대체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대상을 그려요. 이번 그림 역시 오늘 만남의 경험과 이해를 담아서 그리게 될 것 같아요. 저에게는 리얼리티가 중요해요. 인생에서 안 보이는 척 간파하고 싶은 것들, 숨겨놓은 것들도 잘 들춰내고...” “그래서 작가님 그림 볼 때 좀 이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현실이란 게 참 잔인하다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마구마구 들춰내셔도 돼요. 여배우란 화려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화려함의 크기만큼 어두운...” “알 것 같네요. 만족하세요, 연기하는 거?” “그럼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정도 받고 돈도 벌고 있으니 행복하고 만족하지만 주춤주춤 할 때가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일이라도 그게 일이 되는 순간에는 100% 즐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일은 그냥 힘든 거예요.(웃음)” “동감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그림 그리는 거 재밌나요?’ 이봐요, 나는 그림의 노예라고요.(웃음)”

잘 쓰여진 각본처럼 이어진 아트 토크에는 채식과 길고양이, 꽃과 정원 역시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그리고 임수정의 품에 안겨 있는 고양이에는 초상화 작업에서 대화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해준다. 문성식은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임수정의 이야기가 인상에 남았다고 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림으로 갖게 된 그분에 대한 이해를 그림에 개입시켜보고 싶었어요.”

임수정이 아티스트의 뮤즈로 활약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영상설치작품 ‘축지법과 비행술’에서 그는 헤어는 물론 눈썹과 속눈썹까지 은발로 염색하고서 미래의 신인류로 분해 몸짓과 표정으로 작품의 내러티브를 담당했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는 2012년 카셀 도큐멘타 참가작 ‘뉴스 프롬 노웨이’ 프로젝트 출연 이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아트를 향한 애정으로 꾸준한 작품 활동 지원을 이어가시는 진정함 뮤즈 임수정. 그는 이번 프로젝트를 평소 좋아했던 작가에 대해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으로 활용하며 즐긴 자기주도적 아트 러버이기도 하다.

기하학적인 패턴의 드레스는 Fendi 제품.





강렬한 패턴의 원피스는 Hermès, 반지는 Cartier 제품.



## KIM OK VIN

“초상화는 다른 장르의 그림들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 영혼이 느껴진다고 할까,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김옥빈은 한 번도 그림의 모델이 돼본 적이 없다. “사진 촬영은 많이 했죠. 그런데 그림은 뭔가 다르게 느껴져요. 외국 여행 다니면서 미술관에서 만난 초상화들이 떠오르더군요. 초상화는 다른 그림들과는 뭔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좀 더 영혼이 느껴진다고 할까, 그림 속 인물이 진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고, 한마디로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드로잉 미팅 날 그녀는 빨간색 상의가 어깨선을 따라 흐르는 긴 원피스를 입고 부담동 작업실에 도착했는데, 발에는 플립플롭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칭칭 봉대가 감긴 새끼발가락 때문이었다. 영화 〈악녀〉에서 각목부터 도끼까지 살벌하게 휘두르던 그녀가 테이블에서 떨어진 휴대폰 배터리에 당했다.

〈악녀〉를 준비하고 촬영하는 동안 구역질이 올라올 만큼 운동과 액션 연습에 몰두해야 했던 김옥빈에게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동안 의자에 앉아 내면으로 침잠하는 일은 조금쯤 지루했는지도 모르겠다. “방금 살짝 졸 뻔했어요.(웃음) 저는요, 그림 잘 그리는 재주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글씨도 엄청난 약필이거든요.” 자신 역시 약필이라며 작업 노트를 보여주는 문성식과 김옥빈은 손 크기를 비교해보기에 이른다. 김옥빈에게 문성식은 극도로 예민할 거라는 화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준 편안하고 예의 바른 예술가다. “그런데 미팅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분의 작품들을 천천히 보다 보니 씩씩하기도 하고 기묘한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주위의 감독님, PD들이랑 한참 그림 보면서 얘기 나왔어요.” 문성식에게 김옥빈은 외모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그날 입은 의상도 그렇고 활처럼 길게 뻗은 눈썹과 〈박쥐〉에서 봤던 눈빛이 야생적인 느낌을 자아냈어요. 다섯 배우 가운데 유일하게 밤을 배경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보랏빛과 파란빛이 섞여 있는 나팔꽃을 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작에서 밤하늘에 형형하게 핀 나팔꽃 배경과 예의 당당한 눈빛의 김옥빈은 강렬하고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

배경을 이루는 꽃은 포트레이트 프로젝트의 초반부터 고안했던 것이다. 김천에서 포도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작가는 지붕 위로 날아오르는 공작새를 비롯한 여러 동물과 선인장, 목련, 배나무, 봉숭아, 작약 등 온갖 빛깔의 꽃들이 계절의 변화에 맞춰 피고 지는 집에서 자랐다. “아마도 그 시절 동네 어른들은 그것을 보고 험담을 했을 것 같아요. 튼튼 되지 않는 꽃을 발 한 가득 심어둔 농부를 두고 그들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라면서도 부담동의 작업실 옆, 작가가 직접 관리하는 아담한 정원에서는 봄마다 탐스럽게 여러 색의 장미가 만개한다. “사실 그 배경은, 여배우와 꽃이라는 식상한 조합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에요. 저는 배우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랄까, 동물적인 실체 같은 걸 그려내고 싶어요. 꽃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가 봄이었고 당시 제 정원에서 열심히 꽃을 키우던 때라서 꽃혀 있었어요.(웃음) 어떤 조건 하에서도 그리고 싶다는 동기과 욕망을 북돋아주는 요소로서 생각했던 거죠. 배경이 그냥 벽이었다면 헛도는 붓질이 많았을 것 같아요.”

김옥빈은 완성된 그림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상상한 대로 나왔어요. 드로잉 하던 날, 그리시는 걸 보는데 내 얼굴에서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부분들이 도드라지겠구나’ 생각했거든요. 역시 눈썹을 시원하게 착 그리고 작은 입매, 약간 뾰족하게 내려오는 턱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어쩐지 섬뜩해 보이는 나팔꽃! 저는 항상 화보를 찍으면 눈두덩에 걸려를 전하게 올려줘요. 컷이 계속되면서 마지막에는 지구를 정복하는 여자가 돼 있죠.(웃음)” 들어오는 시나리오들도 대체로 검사, 기자, 형사 역할이라는 그녀가 지닌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한 아름다움을 문성식 작가가 가시적으로 만들어주었고, 나는 우리에게 이런 여배우가 있어서 진실로 황홀하다.





별키한 퍼 코트는 MaxMara, 사이하이 부츠는 Salvatore Ferragamo, 목걸이는 Cartier 제품.



## CHUN WOO HEE

“한 작가의 일대기를 망라해놓은 회고전 같은 거 볼 때요,  
그사람이 갖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자기 걸 이뤄나가는  
궤적 같은 걸 보면 도움이 돼요.”

문성식과 천우희의 드로잉 미팅은 뜻밖의 공통점으로 자연스럽고 정겹게 흘러갔다. 문성식은 경북 김천에서, 천우희는 경기도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산중 일상이 익숙하고 공동체적 삶의 소중함과 달레마를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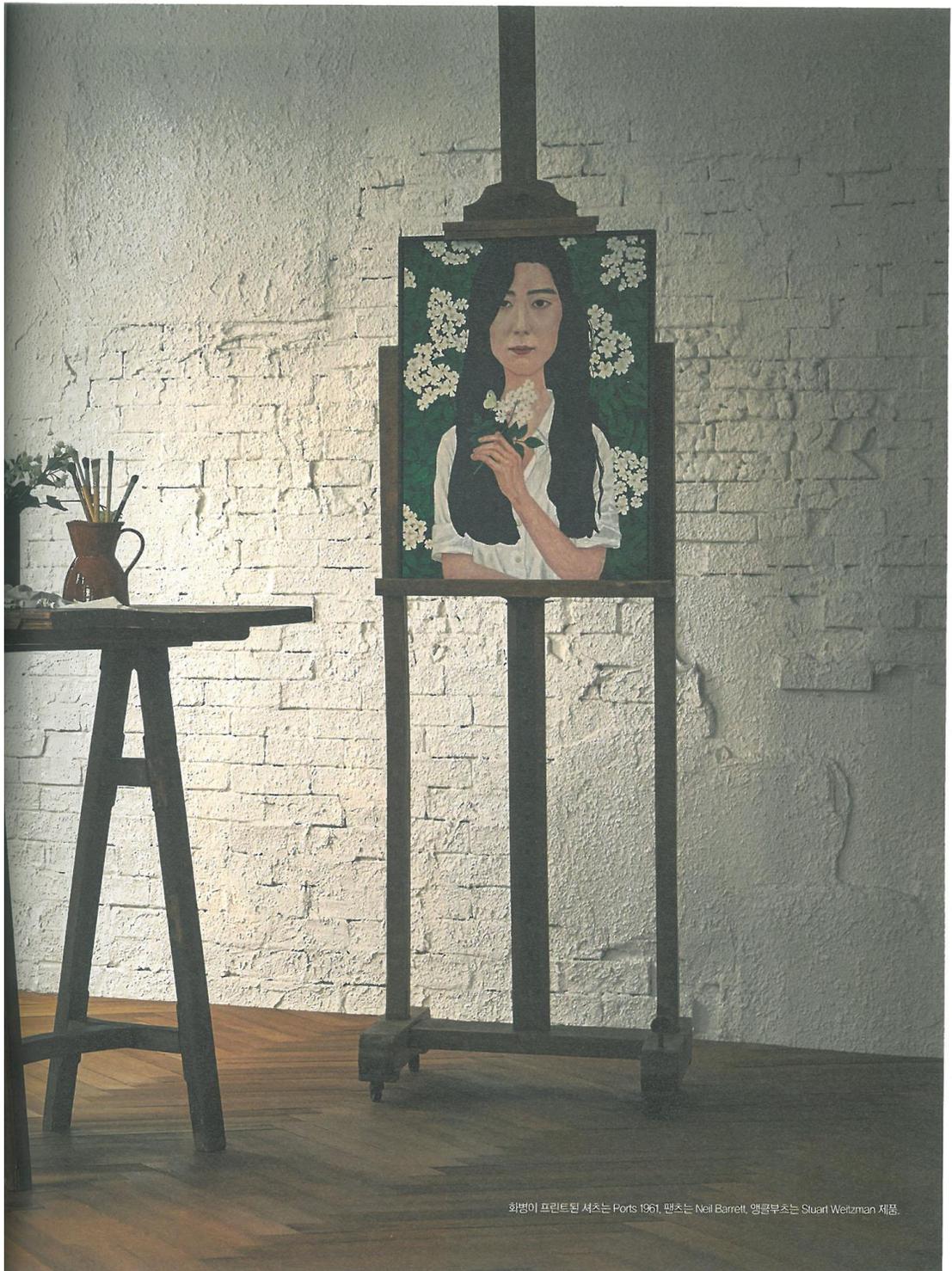
(종이에 연필로 초상을 치르는 고향집 풍경을 그린 2007년 작 '별과 소쩍새 그리고 내 할머니'를 보며 천우희가 말한다.) “공작새가 그려진 디테일이 재밌네요, 이상.” “시골에 가면 하나씩 있죠, 가짜 자개상.” “여기 그려진 사람들 하나 하나 다 그래요.” “저희는 친척이 다 근처에 사는 동네예요.” “저희도 그래요.” “서로의 삶에 깊게 개입해서 살아가는... 굉장히 한국적이죠.” “근근한 가족애가 너무 싫을 때도 있는데 또 그게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집에 공작새가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아, 진짜요?(웃음)” “네, 웃기죠?” “근데 저희 집에도 있었거든요, 공작새.(웃음)” “정말요?(웃음)”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덕에 천우희는 문성식 작가의 작품들에서 다른 사람은 스쳐 보낼 디테일을 발견한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던 가족이라든지, 한 집에서 시작해서 마을 전체 행사가 되는 잔치나 초상 같은 거, 또 저희 집도 정말 특이한 동물들 많이 키웠거든요. 그런 걸 그린 작품들이 뭐랄까, 삼삼한 느낌이었어요. 단순하고 담백하게 그린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아릿하고 기괴한 느낌이 서려 있다고 해야 할까.” 문성식 역시 천우희에게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늘면서도 예지 있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천우희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목구비도 확실한 개성을 갖고 있어서 일반 꽃피는 조금 다른 맨드라미와 매치해 봤어요.”

문성식과 천우희가 최초로 마주한 바깥 세계인 사골 풍경은 이후 두 예술가의 시선의 원형이 되었다.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유년 시절의 정서가 이런 예술성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부분이 제 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무의식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분명해요.” 두 사람은 그 시선의 원형에서 길어 올린 최초의 작품에서 서린 순수성을 다시, 또 다시 되살리기를 원한다. 서툴고 완벽하지 않을지언정 순도 높은 열정이 가득한 작업의 순간들. “연필 드로잉 작품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대학교 2학년 때 본격적으로 제 작품이라는 걸 그리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 그때 작품들이 정말 좋아요. 그 그림을 그린 나 이후부터 15년이 지났고 그 사이 안목도 넓어지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아무 말 없는 그림이 더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잘 못해요.” “왜요?” “그니까 초심이 무너진 거죠.(웃음)” “순수하게, 순진하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연기도 그래요. 제가 10년 정도 연기를 했는데 벌써 어느 정도 익숙해진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천우희는 전시 보는 걸 좋아한다. “한 작가의 일대기를 망라해놓은 회고전 같은 거 볼 때요, 그사람이 갖고 있었던 예술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자기 걸 이뤄나가는 궤적 같은 걸 보면 도움이 돼요. 그림을 보러가긴 한 거지만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녀가 배우로서의 순도를 오래도록 지켜나가기라는 확신이 든다.





화병이 프린트된 셔츠는 Ports 1961, 팬츠는 Neil Barrett, 앵클부츠는 Stuart Weitzman 제품.



## JUNG EUN CH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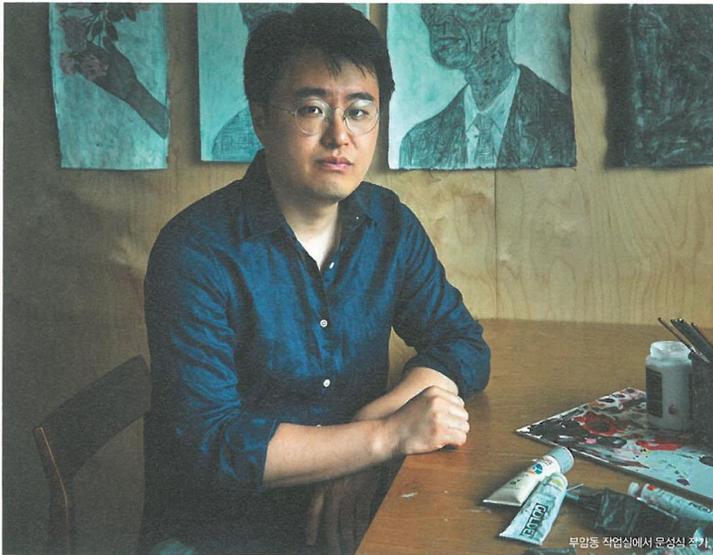
“이렇게 앉아 있는 거은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해요.  
저와 작가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의 거리만큼  
적당한 거리감과 관심과 친절함이 느껴져요.”

커다란 창밖으로 초여름의 풍경이 흐르는 봄날, 정은채는 제일 처음으로 문성식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다. 그녀는 철저히 객체가 되어 두어 시간째 앉아 있으면서도 좀처럼 권태와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제법 낮은 가리는 두사람은 띄엄띄엄 몇 마디 나누다 이내 편안하고 친밀한 침묵 속으로 미끄러졌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은종일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해요. 저와 작가님 사이에 놓인 테이블의 거리만큼 적당한 거리감과 관심과 친절함이 느껴져서 이런 작업 처음인데도 정말 재미있어요.” 정은채는 그림의 모델이 된 적은 없지만 최근 개봉한 김종관 감독의 영화 《더 테이블》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관찰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다. “그 영화도 마찬가지로 가까이서 인물을 관찰하고 그 반응을 담은 식으로 전개되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카메라가 미묘하게 변하는 심리묘사를 담아내면서, 그래서 작가님이 보신다면 본인이 날 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선 또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잘 그려낼까, 비교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 내음 풍기는 검고 긴 머리에 말쑥하고 차분한 얼굴로 모델에 집중하는 정은채에게서 문성식 작가는 절레꽃을 떠올렸다. “야생 꽃이면서 새하얀 절레꽃의 퓨어한 느낌, 영화감독들이 말하는 하얀 도화지 같은 배우라는 상투적인 표현이 진짜로 가능하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있는 듯했고, 새하얀 피부와 새까만 머리의 콘트라스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를 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정은채는 즐겨 전시를 보러 다닌다. “노석미 작가의 그림을 좋아하고요, 페리치 갤러리에서 전시할 때 잭슨홍 작가의 작품을 보고서 그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게 됐어요.” 문성식 작가의 작품 중에는 ‘정원’ 시리즈를 좋아한다. 무대처럼 직사각형으로 지어진 공간에 인공적 느낌의 정원을 그린 작품들이다. “자연에는 없는 직선으로 플랫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갖가지 나무들을 세밀로 세워 그렸는데 마치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들이 각자 방향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어요. 컬러감도 너무 좋고요.” 드로잉 미팅에서 모델은 관찰되는 동시에 뜻하지 않게 작가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정은채의 예리한 눈은 도구에 많이 머물렀고, 호기심 역시 어떤 물감을 사용하는지, 같은 좀 더 실질적인 쪽에 가까웠다. “기본적으로는 아크릴 페인팅이고 물도 하는 걸 좋아해서 대체로 물을 섞어 쓰는 편이에요.” 반대로 작가의 호기심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는데 영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이 영화배우가 된 계기를 궁금해했다. “런던에서 기자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숲 한가운데 학교랑 기숙사만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립된 느낌이었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어났죠. 그런 궁금증이나 결핍감을 해소해준 게 영화였고요.”

정은채는 다양한 인간관계의 공백으로 인해서, 문성식은 시골 공동체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공통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교류에 대해 늘 갈망이 있었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재미있어 했어요. 영화계에 들어온 지금은 그 시절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여전히 관심은 계속돼요.” 차분하고 섬세한 두 관찰자가 조심스럽게 나누는 교류의 기록이 정은채의 초상화로 남았다.

독특한 형태의 원피스는 Céline 제품.



부만동 작업실에서 문성식 작가



# 리얼리스트의 그림

“내 그림은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의 리얼리티와 자연의 섭리, 그가운데 의미심장한 장면을 그리는 문성식 작가의 작품은 그 말대로 어렵지 않다. 그 어떤 그림보다 깊은 마음의 파동을 일으킨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웠나? 사람들이 여배우를 생각할 때 세속화된 아름다움에 집중한다. 그런데 아름답다는 인식이 배제하고, 여배우라는 패러다임도 빼고 그저 한 생명체로 바라보고 그가 지닌 고유한 숨결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요즘 대부분의 화가들은 자신이 찍은 사진을 갖고서 그림을 그린다. 이번에는 실제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경험이었나? 보통 작업을 할 때 모델을 앉혀놓고 그리는 일이 쉽지는 않다. 일단 모델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들고, 성격상 타인을 몇 시간씩 앉혀놓는 일이 부담스러워서 해본 적이 많이 없다. (웃음)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내 그림에서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하다.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피하지 말고 해보자, 해서 제인을 승낙하게 되었다. 다섯 명의 배우 모두 무뎠 차레씩 드로잉 미팅을 했는데 어쨌든 회화적 대상을 직면하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일어나고 못 봤던 면을 보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이해가 인물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걸 경험했다.

화가에게 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대상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체험과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사진을 보고 그리는 일은 사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점을 이용해 게르하르트 리히터 같은 경우엔 사진이 표현하는 실체와 멀어지는 상태를 오히려 즐기기도 하고, 현대회화에서 그와 같은 다양한 시도들도 있는데 나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리얼리스트에 가까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 관심이 많고, 대상의 온전한 실체와 리얼리티를 표현하고 싶다. 근거가 없는 그림, 그저 이미지로만 접하고서 그린 그림은 영락없이 좀 뜬다. 미끄럽고, 재미가 없다. 내가 누군가를 직접 만나면 호감이든 비호감이든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잖나. 그 판단이 근거여야 하는 거다. 에너지원이랄까? 이미지를 통해서만 그게 안 생긴다. 내 작품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는데 그걸 평가하려는 요소가 바로 근거가 확실한가, 하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경험하지 않는 걸 그럴 때 그림은 생명력을 잃는다. 이번 프로

‘도시와 새’, 종이에 아크릴릭,  
37×69.3cm, 2015,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화면에  
투사되고 그것을  
그린 이가 떠나도  
그 화면에 남아 있는 것은  
참 마법 같은 일이다.  
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림을 열심히 해보는 것이  
그리 의미 없을 것  
같진 않다.’

-드로잉 에세이 <글과 아이> 중에서

젝트 역시 직접 대면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생생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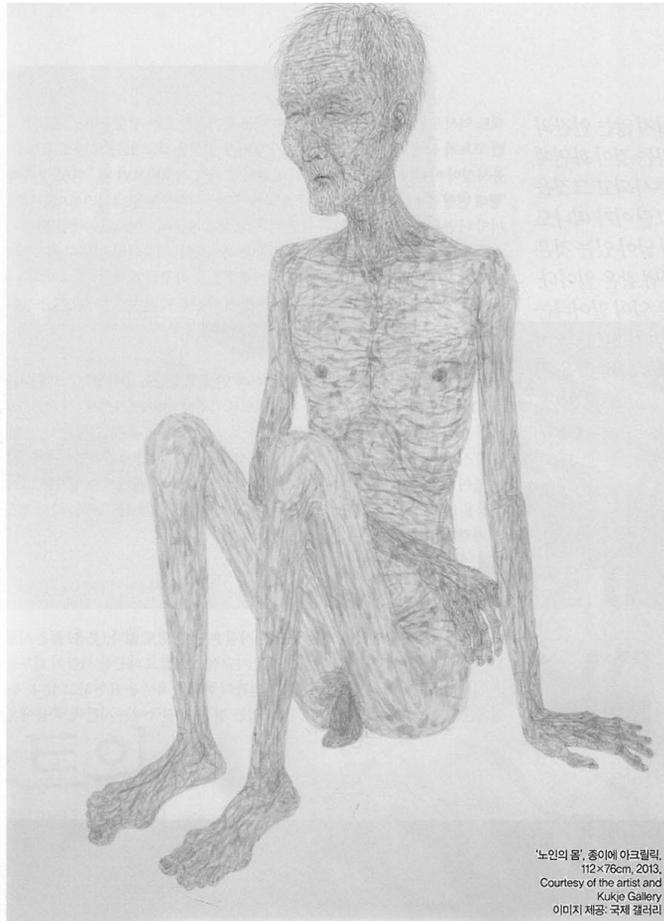
반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 자기가 가장 열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초상화라면서 이렇게 썼다. “나는 사진과 같은 유사성이 아니라 우리의 열정적인 표현력에 따라 시도해보려 해.” 다섯 명의 배우를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지 않았고, ‘형태 변형’을 시도했다. 아름답다고 일컬어지는 여배우들을 그리면서 아름답게 그리지 않은 이유는 표면의 묘사 그 너머의 이면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이해’를 위한 관찰이 필요했던 거고 그림에 필요한 요소들을 모은 후에는 내 스타일대로 변형을 시도했다. 이를테면 천우희 씨의 개성적인 외모와 인상적인 느낌을 위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입술 색깔을 자줏빛으로 바꾸었고, 윤여정 씨의 피부분에 특별히 공을 들였다. 반 고흐는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시간과 그때의 상황에 자신을 깨어내는 방식으로 초상화를 그렸다. 그러니까 지루한 터치가 없다. 모든 걸 직면해서 그렸으니까. 매뉴얼화되면 금방 지루해진다. 난 그 방식이 미래적으로 느껴지고 회화가 가진 미래성이라고 생각한다.

임수정, 천우희 배우가 공통적으로 당신의 연필 드로잉을 좋아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당시 역시 2002년 작인 ‘집과 과부의 집’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 꼽았다. 대학교 2학년 때 효자동 자취방에서 ‘과부의 집’을 완성했다. 켄소(캔버스에 에벌로 바르는 흰 물감)를 칠해둔 먼 천에 사다 놓은 재료가 없어 연필로 감칠에 살던 시절 과부가 된 열집 할머니를 그린 그림이었다. 마당에 잡초가 수북이 자라났고 밤에는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지붕이 갈딱갈딱거렸다. 천 위에 연필은 안락이 잘 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그려보려고 해야 했고 그 노력의 흔적이 회화성을 만들어냈다. 꼬질꼬질함과 버벅거림이 그대로 노출된, 그리는 자의 정신을 비교적 오묘한 반영하는 연필 선의 매력을 알게 됐다. 구도와 구성은 알차고 선들은 과감하고 잡초나 사람의 표현이 순진하고 정직했다.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떻게 그려도 재미없게 그려지는 시절을 만났다. 두 배우와 그린 상태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기억이 난다. 연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속 부담감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을 버리고 순수하게 자유롭게 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곳 작업실에 나붙은 초상화들 중 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웃음)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을 그리는 게 훨씬 쉽고 흥미롭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일단 기술적으로 젊고 매끈한 사람의 피부를 그리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 (웃음) 나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인간의 한계와 욕망을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어떻게든 그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전부다. 결국에는 시간에, 죽음에 인간이 무릎 꿇는 흔적들 거기에 관심이

A2E / Kim Seongwoong, Chun Young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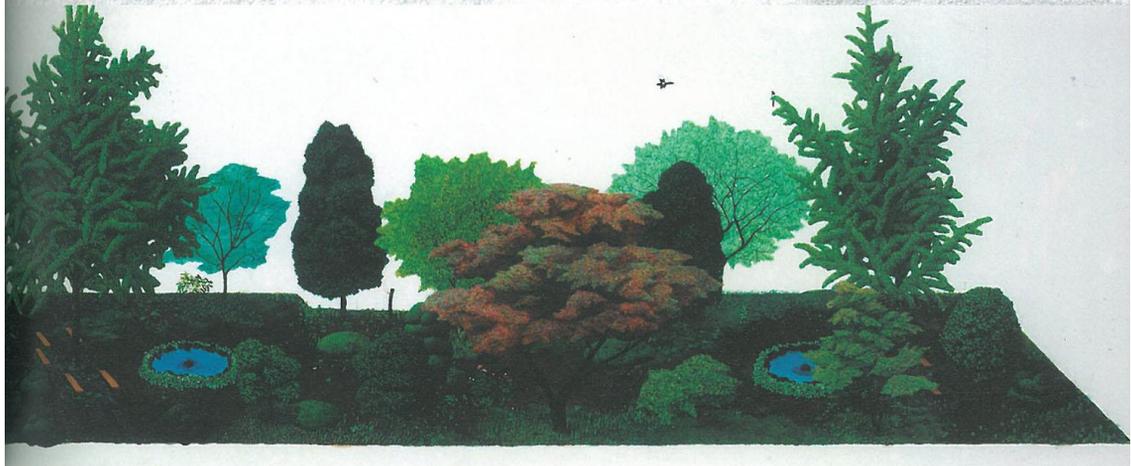
'노인의 몸', 종이에 아크릴릭,  
112×78cm, 2013.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발동을 한다. 지금 작업실에 걸려 있는 저 늙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제이무리 드높은 권력을 누렸던 자라도 결국엔 늙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걸 표현하고 싶었다.

사람이 등장하던 풍경을 그리 당신의 그림은 알맞은 세계를 펼쳐 보인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배우들도 모두 당신의 그림에서 아늑하고 깃곳은, 그러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중학교 때까지 경북 김천에서 자라서 고등학교 때 평창동에 있는 서울예고를 다녔다. 그 간극이 상당하지 않았겠나? 주말에 고향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 행색은 초라해 보였고 서울에 오면 상류층 집안의 아들딸들과 학교를 다니는 웃기는 삶을 살았다. 그때 정체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작품에 많이 반영되는 것 같다. 세상은 아름답고 슬프고 무섭고 추하다. 그렇다고 삶을 비판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결국 아름다움이 있지 않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느끼고 경험한 세상을 표현하는 일 말고 인간이 달리 할 일도 없는 것 같다. (웃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일단 신윤복과 김홍도에서 시작해보자. 신윤복은 캐치하는 게 세련된 화가이고, 김홍도는 테크닉이 훌륭하다. 예지 있고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이라 신윤복을 좋아하는데 그 예민함에 알맞은 게 있어 나와 비슷한 유형의 인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정선은 짧고 싶은데 나보다 훨씬 선이 굵고 호방하다. 박수근과 이중섭은 내가 길을 헤맬 때 지향점이 될 수 있는 작가들인 것 같고, 김환기도 좋아하는데 나만큼 기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루이즈 부르주아, 피터 브뤼켈, 히에로니무스 보슈, 한스 멜링, 한스 홀베인... 좋아하는 작가는 너무 많다. 요새는 중세 미니어처 페인팅이라 그러나? 책에 그려진 세밀화 같은 걸 많이 구경한다. 아마도 수도사들이 그린 그림이었을 텐데, 양식도 나이브하고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간 해석이 자의적인데도 굉장히 흥미롭다.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에 놓다 보니 대체로 땅이 서 있다. (웃음) 인도나 터키, 유럽, 한국의 풍속화도 디테일은 저마다 다르지만 스토리나 인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궁극한 방식들이 대체로 비슷하다. 거기서 흥미로운

'최사각형정원',  
캔버스에 아크릴릭,  
112×324cm, 2004.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회화성을 발견하고 오히려 현대적으로 보여 즐겨 본다.

작품 활동의 초반부터 큰 주목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귀의 진정기관이 고장이 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유명세에 시달리는 게 일의 상당 부분인 배우들과 그런 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심리 치료를 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웃음) 불안이 너무 심했다. 그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겨서 정말 힘들었는데 심리 치료를 통해서 살마리를 찾았다. 여배우로 사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거라는 걸 대강은 짐작할 수 있어서 마음의 병이 생겼다면 몸의 병처럼 하루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 내년 3월로 예정된 국제 갤러리 전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15년 출간한 에세이 〈굴과 아이〉에서 이 구절이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작가들이 선망하는 공간에서 전시를 하게 되면 그 전시 공간에 대한 선입견이 부풀려진 만큼 작품도 그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럴 때면 지금 현재의 내 상태보다 나아 보이고 싶은 욕심이 나서 그림의 스케일이나 소재를 잘못 결정하게 되기도 한다. 이래야 할 것 같은 마음,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본래의 동기는 오염되기 시작한다." 이번 전시는 뛰어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마음속에 '그렇듯하게 해야 해'라는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 게 보인다. 남을 놀래주고 싶은 저의, 나도 마찬가지다. 인간이니까 누구나 욕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 때 좋은 작품은 나오기 힘들다. 내가 두산 갤러리에서 한 전시를 준비할 때 처음에 그랬다. 오랜만에 하는 데다 공간이 크니까 '떡하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내 그림이 더 크지?" "내가 더 못 잘 놀리지?" 그런 거.(웃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의 부질없음을 느낀다. 그때 정말 용을 써서 그런 단계를 간신히 벗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컨트롤이 되는 규모에서 (전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그림이 안 무서울 테니까. 개인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6개월 동안은 내 마음의 순 방향을 따라서 가보고려고 하고 있다. ■

‘얼굴을 그리는 기법이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시아적인 색채가 있고 내 주변의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인물화를 그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태에서 문성식적인 변형이다. 표면의 묘사를 넘어 이면의 것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관찰, 그것을 통해 표면이 증식해나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인간에 대한 나의 시선이 들어 있어야 한다.’

—드로잉 에세이 〈굴과 아이〉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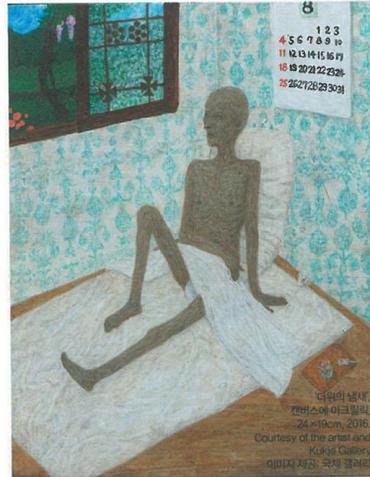


“별이 빛나는 밤에,  
중이에 과슈,  
60.5 x 126cm, 2016.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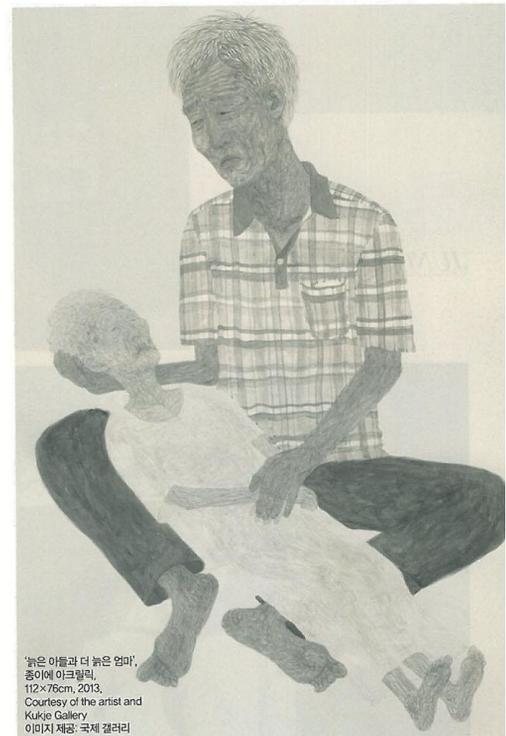


'정중': 종이에 잉크,  
42×29.4cm, 2013,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정중  
2013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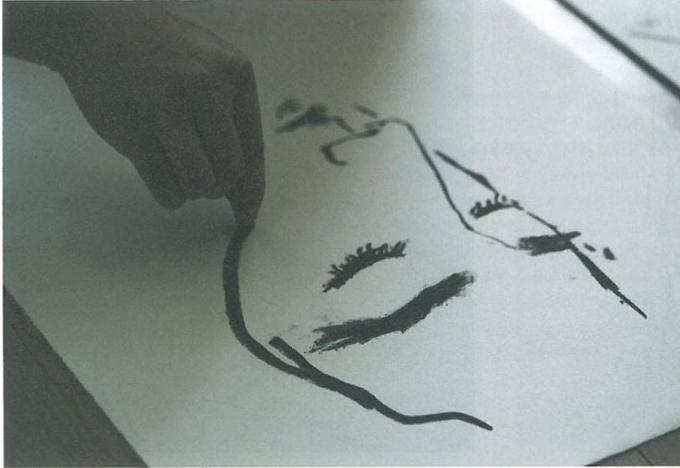


'더위의 냉채':  
캔버스에 아크릴릭,  
24×19cm, 2016,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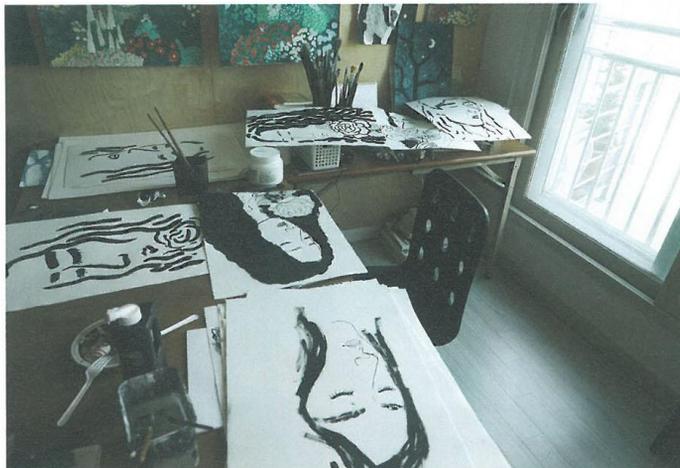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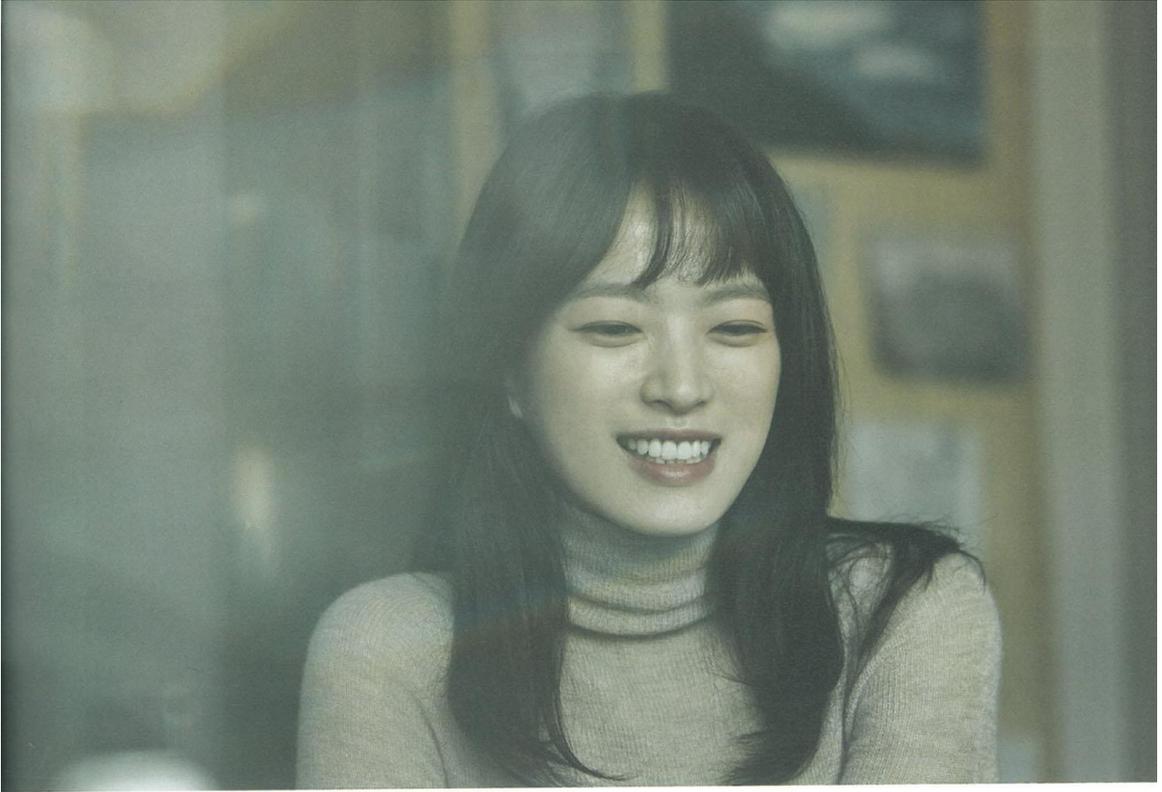
'늙은 아들과 더 늙은 엄마':  
종이에 아크릴릭,  
112×76cm, 2013,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이미지 제공: 국제 갤러리

# BEHIND THE SCENE



*JUNG EUN CHAE*





CHUN WOO 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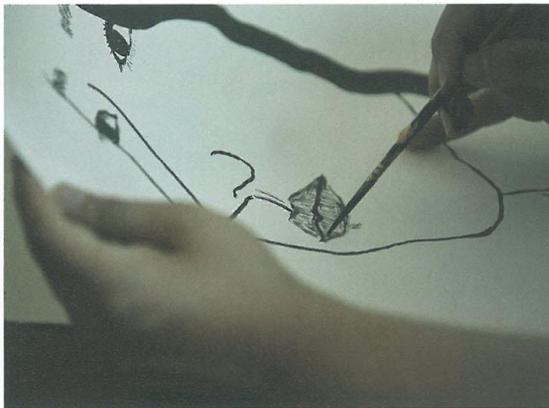


*YOUN YUH JUNG*



*KIM OK VIN*





*LIM SOO JUNG*